

# 무형문화유산과 디지털도구: 전송, 참여적 관리, 시급한 문제

새리프카즈나다(ChérifKhaznadar)



## 무형문화유산과디지털도구: 전승, 참여적관리, 시급한문제

Marta Severo 및 SéverineCachat, (편집)

(파리, L'Harmattan 에디션, '디지털 인문학' 컬렉션, 2016 년 11 월)

210 pp.문고판€21.50, ISBN - 978-2-343-10654-0

### ● 새리프카즈나다 (ChérifKhaznadar)

**저자 목록:** Nolwenn Blanchard; Marguerite Borelli; Séverine Cachat; Jean-Jacques Castéret; Francesca Cominelli; Francesca Dagnino; Jean-Pierre Dalbéra; Milad Doueïhi; Véronique Ginouvès; Mélanie LaRoche; Martin Leblond; Sylvaine Martin; Alison McCleery; Alistair McCleery; Renan Mouren; Francesca Musiani; Joanne Orr; SheenaghPietrobtuno; Francesca Pozzi; Valérie Schafer; Marta Severo; HuguesSicard; Anne-Laure Stérin; Sara Thomas.

「무형문화유산과 디지털 도구(Le Patrimoine Culturel Immateriel Et Numerique)」는 2012 년이후 개최해온 무형문화유산 정책관련 연례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 무형문화유산센터(CFPCI)가 2015 년 9 월 8 일에서 9 일 양일간 (프랑스) 브르타뉴비트레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의 결과물이다.

파리 제 10 대학의 통신과학부교수인 Marta Severo 와 세계 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 책임자인 문화인류학박사 Séverine Cachat 은 이 출판물에서 무형문화유산과 디지털도구간 연계성 및 이와 관련된 사안들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증언을 결합한다.

200 페이지가 넘는 이 책은 불어 기고문 14 개와 영어 기고문 4 개 및 흑백 삽화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판적인 비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정보통신학, 역사학, 인류학, 경제학, 음악학, 교수학 등)의 연구자, 문서작성자, 변호사, 유산전문가, 문화기관 대표 및 여러 국가들(이탈리아, 스코틀랜드, 캐나다)과 여러 프랑스 지역의 실천 공동체 구성원들이 제기하는 질문과 견해를 수록하고 있다.

21 세기 초 무형문화유산의 출현과 성공은 2003 년 채택된 유네스코협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술발전 및 디지털 통신도구의 가용성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동시 발생은 특히 프랑스어의 동음성으로 인해 무형문화유산 및 물품/문서 컬렉션의 디지털화에서 유래한 비(非)물질화 유산 또는 특히 인터넷 데이터의 디지털포맷으로 생성된 유산 간의 혼동, 달리 말해 무형문화유산(ICH) 및 이러한 유산의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문서화 및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청각 보존기록간의 잦은 혼동을 유발한다. 이 책은 다양한 영역간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협업적 관리를 위해 전례 없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장치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재 창조되는 이 살아있는 유산, 자신의 무형유산으로 인정해 이러한 유산을 만들고 전승하는 공동체에 기초해 보호해야 하는 이 유산의 특이성 및 필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형문화유산(ICH)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킹 및 전문 지식의 다양성을 양성시킴으로써 공개/공유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도구는 참여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형유산 종목들의 형태를 '동결'시키지 않고 오히려 상향식 접근방식을 장려함으로써 식별, 지식, 홍보 및 증재의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동적인 특성을 보완한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와 공동체 주도의 계획간의 연계를 비롯해 많은 의문과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위키피디아 관련 문제나 유산이 특히 유튜브와 같은 상용 플랫폼을 통해 전파됨으로써 이러한 유산을 보유한 집단 및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다루기 위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1. 전승, 가치평가, 증재
2. 법적윤리적문제
3. 참여와피드백

비트레회의(Vitré meeting)의 개회사에서 파리-소르본대학의 디지털 인문주의 의장인 Milad Doueiri 는 기억과 망각의 관계를 재고하고 무형물의 물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 1 부에서는 다른 기고자들도 특히 다양한 분야를 통틀어 유네스코 협약 체계에 의거한 참여정책이라는 측면에 관하여 디지털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기회 및 무형문화유산 행위자들(actor)의 디지털기술 사용에 관해 고찰한다.

제 2 부를 구성한 연구자, 변호사 및 아카이브 전문가들은 개인과 집단의 권리(초상권, 저작권, 공동체 법 등)와 관련해 신기술의 개발로 제기되는 위험들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법적 보호의 매우 복잡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무형유산의 보급에 적용해야 할 윤리적 원칙들을 제시한다.



마지막 제 3 부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보관, 문서화 또는 목록작성을 위한 디지털기술의 사용과 이를 통한 무형문화유산행위자(actor)와 보유자(holder)의 참여허용 및 촉진을 포함하는 몇 가지 실험을 제시한다. 이러한 실험에는 에딘버그내피어대학(Napier University)이 제작하고 현재 스코틀랜드의 박물관 및 갤러리들이 운영하는 스코틀랜드위키(Scottish Wiki), 문화 관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움직임과 소리를 정확히 녹화하는 유럽 i-트레저프로젝트(European i-Treasure project) 및 프랑스 무형문화유산목록을 강화하고 시맨틱웹을 통해 공동체의 무형문화제 전유를 장려하기 위해 프랑스 문화부와 공동으로 아키텐옥시탄연구소(InOC)가 개발한 PCLab 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급속한 발전으로 수많은 희망과 함께 여러 의구심을 야기한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 불어로는 처음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행위자(actor)와 전문가, 나아가 다양한 문화와 정치 전통을 보유한 국가들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관련분야들의 접근방식 및 견해를

결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기록과 관련된 조치들을 안내할 풍부하고 고무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디지털부문이 터놓은 전망들에 관해 이 책의 저자들이 널리 공유하는 열의가 자칫 디지털도구의 일차적 목적인 무형문화유산보호에 해를 끼치는 '도구화(gadgetisation)'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